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스웨덴 인구정책 및 핀란드 주거급여 전문가 면담

☐ 과제명

- [일반24-001-09-04]스웨덴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

☐ 출장기간

- 2024.06.08.(토) ~ 2024.06.16.(일)

☐ 출장국가(도시)

-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투르쿠, 탐페레)

☐ 출장자

- 신영규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① 6/10	스웨덴 (스톡홀름)	스톡홀름 임대주택 (Albanovägen 13, Roslagsgatan 20)		- 스톡홀름 임대주택 현장 방문
② 6/10	스웨덴 (스톡홀름)	스톡홀름대학교	Gunnar Andersson, Gerda Neyer 교수	- 스웨덴 인구정책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자문 - 시민 인식 조사 설문지에 대한 자문
③ 6/11	스웨덴 (스톡홀름)	스톡홀름대학교	Livia Olah 교수	- 스웨덴 가족정책과 출산 의향의 관계에 관한 자문 - 시민 인식 조사 설문지에 대한 자문

④ 6/12	핀란드 (헬싱키)	헬싱키 임대주택 (Hyvääntoivonkatu 7, Itämerenkatu 22)		- 헬싱키 임대주택 현장 방문
⑤ 6/12	핀란드 (탐페레)	Solo Sokos Hotel Torni Tampere	Teemu Kemppainen 박사 박영선 연구원	- 핀란드 인구 및 가족정책과 주택의 사회적 혼합에 관한 자문
⑥ 6/13	핀란드 (투르쿠)	투르쿠대학교	Jarkko Rasinkangas 박사, Elina Sutela 연구원 박영선 연구원	- 핀란드 저출산 대책과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
⑦ 6/14	핀란드 (헬싱키)	Y-Foundation	Juha Kahila	- 핀란드 Housing First 정책 관련 자문
⑧ 6/14	핀란드 (헬싱키)	핀란드사회보험청 (Kela)	Olli Kangas 교수, Signe Jauhiainen 박사	- 핀란드 공공부조제도 및 주택급여 관련 자문

2 출장 주요내용

①	스톡홀름 임대주택 현장 방문			
일 시	6/10 09:00~12:00			
장 소	스톡홀름(Albanovägen 13, Roslagsgatan 20)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 Stockholm Housing Agency(Bostadsförmedlingen)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두 지역(Albanovägen 13, Roslagsgatan 20)을 방문하여 주택 유형과 관리 상태 등을 검토함. - Albanovägen 13 단지는 스톡홀름 소재 University 또는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1인실 스튜디오부터 4개의 방으로 구성된 아파트까지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를 제공함. - Roslagsgatan 20 단지는 스톡홀름에 2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50~106㎡ 사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 62개로 구성되어 있음.			
②	스톡홀름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1			
일 시	6/10 15:00~17:00			
장 소	스톡홀름(스톡홀름대학교)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Gunnar Andersson, Gerda Neyer 교수 (스톡홀름대학교)			

- 스웨덴 인구 동향: 스웨덴은 사망률, 이주, 출산율의 영향을 받아 균형 잡힌 인구 연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유연한 은퇴 연령과 수명의 증가를 통해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왔다.
- 이주의 영향: 스웨덴은 2010-2015년 동안 이주가 급증했으며, 많은 이주민이 점차 노동 시장에 통합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출산율: 스웨덴의 출산율은 변동이 있었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 정책은 일과 가정생활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등 교육과 경력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 늦은 출산: 스웨덴에서 출산이 지연되면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이 이를 지원하여 가족들이 출산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단기 이주 효과: 이주는 이주 후 가족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출산 장려 정책 없음: 스웨덴은 명확한 인구 정책보다는 노동 시장 참여와 성평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성평등 및 가족 정책: 스웨덴의 정책은 성평등을 촉진하여 부모 모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율에 이익을 준다.
- 사회보장 및 노동 시장: 스웨덴의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은 자녀를 갖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최근의 주관적인 세계 불확실성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비교 관점: 인터뷰는 한국의 결혼과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초점이 스웨덴의 보다 유연한 접근법과 대조되어 출산율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관적 요인: 스웨덴 및 다른 OECD 국가들의 최근 출산율 감소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소셜 미디어 영향 같은 주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 경제 불황의 영향: 1930년대와 같은 역사적 경제 불황은 사회적 위기를 저출산율과 연결시켜 스웨덴에서 복지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
- 정책 효능: 사회보장 강화와 고용 안정성 증진은 중요하지만, 직장 문화와 가족 역학을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미래 전망: 출산율은 약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 시장도 출산율 동향과 관련하여 연구되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이다.
- 한국 상황: 인터뷰는 한국의 노동 시장 이중화와 고용 불안정성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포괄적인 사회 및 노동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③	스톡홀름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2
일 시	6/11 09:30~11:30
장 소	스톡홀름(스톡홀름대학교)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Livia Olah 교수 (스톡홀름대학교)

- 스웨덴의 가족 정책: 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결혼한 부모와 미혼 부모를 구별하지 않으며, 결혼 여부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부모 휴가 권리를 강조한다.
- 부모 휴가 접근성: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임시 계약이나 정규직 계약을 가진 부모도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한다.
- 성평등의 영향: 스웨덴의 정책은 성평등을 촉진하며, 아버지가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는 두 번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 더 넓은 가족 정책: 부모 휴가는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공공 보육과 같은 다른 정책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회 보장 및 비용: 스웨덴의 포괄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은 양육의 직접적인 비용을 줄여주지만, 한국에서는 교육 및 기타 비용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
-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 2010년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 불확실성, 변화하는 열망,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장기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인지된 불평등: 한국에서는 인지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젊은이들의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파트너십 안정성: 안정적인 파트너십은 출산에 필수적이며, 스웨덴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덜 부유한 개인들이 점점 더 이러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집약적 육아: 부모 역할이 매우 소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집약적 육아 개념이 스웨덴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 의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사회적 혜택 감소: 스웨덴의 사회 정책 혜택 감소는 불확실성을 신호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줄여 출산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 OECD 동향: 출산율 감소는 OECD 국가 전반에서 보편적인 경향이며,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 한국을 위한 정책 권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사회 지원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주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 장기적 해결책: 사회는 아이들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
- 공공 토론 및 교육: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에 대한 공공 토론과 교육을 촉진하는 것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 신중한 정책 차용: 헝가리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은 사회적 및 경제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④	헬싱키 임대주택 현장 방문
일 시	6/12 07:30~09:00
장 소	헬싱키(Hyväntoivonkatu 7, Itamerenkatu 22)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 헬싱키시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기관인 Heka가 소유 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Jätkäsaari 지역의 Hyväntoivonkatu 7 단지와 Ruoholahti 지역의 Itämerenkatu 22 단지를 방문하여 주택 유형과 관리 상태 등을 검토함.
- 2018년에 완공된 Hyväntoivonkatu 7 단지는 헬싱키 거주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27.5~95.0m² 사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 101개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 기준 평균 월세는 1m²당 17.16유로로 책정되어 있음.
- 1994년에 완공된 Itämerenkatu 22 단지는 헬싱키 거주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36.0~100.5m² 사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 65개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 기준 평균 월세는 1m²당 14.37유로로 책정되어 있음.

⑤	헬싱키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일 시	6/12 11:00~15:00
장 소	담배레(Solo Sokos Hotel Torni Tampere)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Teemu Kemppainen 박사, 박영선 연구원 (헬싱키대학교)

○ 핀란드 현재 주택 상황 및 변화

- 핀란드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여서 독일 등의 국가와 사정은 매우 틀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내부적으로 대도시 및 기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헬싱키 등 대도시의 지가는 갈수록 상승 중이며, 그 외 지역은 주택가치의 하락 및 노후화, 빈집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 주거를 매개로 사회불평등은 확대되고 있음.

○ 핀란드와 타 유럽국가 간 차이점

- 핀란드는 국가 중심의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징이 있으며 이는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에서도 거의 유일한 특징임. 이는 내전과 소련과의 전쟁 등 대내외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영향을 받은 것임. 다만 전후 국가 차원은 아니나 협동조합 및 지자체의 개입으로 사회주택이 활성화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 최근 20년 내 임대주택 감소 추이

- 사회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고르게 분포되고 있지는 않고 주로 대도시 위주로 매입되거나 건설됨

○ 주거 정책에서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간 관계

- 특별히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임. 자유주의자일수록 임대주택보다 주거급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극단적 자유주의자는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모두를 거부할 것임. 최근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삭감하려고 하여 우려스러운 점이 있음. 특히 임대 부문 뿐 아니라 자가소유 촉진 정책으로도 모기지 보조와 이자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이 활발했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들이 전반적으로 삭감되고 있음(세금공제 등도 중단). 이번 중도우파 정권은 가능하면 민간 건설에만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핀란드의 소셜 믹스에 대하여

- 핀란드는 타 국가에 비해 사회주택에서 소셜 믹스 관련 이슈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주거 정책 만의 노력이 아니라 60여년에 걸친 복지국가 자체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물론 사회주택에는 특별한 니즈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매우 보편적인 범위의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임대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배경을 가진 임차인을 배척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다고 확신함.

○ 핀란드 노숙인의 일반상황과 주거급여

- 핀란드에는 약 5,000여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인구 500만의 약 1%에 해당함.
- ‘Housing First’ 은 보건사회부처, 지방자치단체, NGO,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등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층에게 지원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
- 하우스링 퍼스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주거급여를 물론 이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통계를 본 적은 없음. 다만 주거급여는 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대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 체계가 있음
- 하우스링 퍼스트가 잘 작동되더라도 현재 핀란드의 주거비 상승은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음. 또한 이주민 등에 대한 새로운 문제도 발견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함

⑥	뚜르꾸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일 시	6/13 15:00~17:00
장 소	뚜르꾸(뚜르꾸대학교)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Jarkko Rasinkangas 박사, Elina Sutela 연구원
(뚜르꾸대학교), 박영선 연구원 (헬싱키대학교)

○ 핀란드의 공공임대주택 체계

- 핀란드의 주택 정책은 가구 중 사회 임대 주택은 11-12% 정도이며 주택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며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매우 상이함. 이전의 중도좌파 정부는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35%를 늘리기도 하였다.
- 현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주고 있어 격동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
- 사회 주택을 현 정부는 그 비율을 낮추고 싶어하며 향후에는 민간 부문의 발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주거급여도 줄이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밝히고 있다.
- 우파 정권은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사회 주택이 시장 교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택 시장이 가능한한 덜 방해받고 사회적 임대주택이 엄격하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 정부가 다소 이상한 것은 현금 지원도 삭감하고 있다는 점임. 즉 현 정부는 주거급여와 사회주택 모두를 삭감하고 있음.
- 사회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적지 않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 도시로 이주한 사람이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 ARA 등 임대주택의 시행 주체

- ARA에서 가장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함. ARA 는 환경부의 총괄 아래에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ARA는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며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재정부의 사회주택과 환경부의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ARA의 재정을 결정한다.
- 지자체별 개발기업을 둘 수 있으며 각각 사회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함. 따라서 개별 시 자체가 거대한 집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음. 헬싱키 시의 경우 주민 6명 당 1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임대주택은 일반적 주민을 위한 주택과 특수 니즈가 있는 사람을 위한 주택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후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학생, 노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임대주택 중 가장 큰 협회는 학생주택협회임.
- ARA 는 부지의 가격, 주택건설 허가 등에 대해 관여하고 건설 대출에 대한 이자보조금을 보증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부와 ARA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는데, ARA는 보다 주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편이다.
- 실제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헬싱키 같이 큰 도시는 그 도시 산하의 건설회사가 있다.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땅에 주택을 어떻게 짓는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공고를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업들은 민간회사들이다. 민간회사가 돈이 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이유는 경기에 따라 그런 수요라도 채기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헬싱키는 자체적인 공공회사가 디벨로퍼가 되어서 개발을 하고 직접 시행은 민간업체가 한다고 보면 됨.

○ **하우징 퍼스트에 입각한 서비스의 개요**

- 법적으로 하우징 퍼스트에 대한 정의는 있지 않음.
-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필요계층에 대해서만 대상이고 18세 이상이어야 함
- 노숙인 수는 ARA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집에 거주하는 노숙인(친구에 더부살이 하는 경우)은 ARA 에 임대주택 신청을 할 때 체크하는 란에서 파악함
- 노숙인은 1년에 약 4,00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거리노숙인은 약 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 외에는 임시숙터, 호스텔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임. 이러한 경우에 처할 때에는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노숙인이 되었을 때에는 노숙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주택, 케이스 워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일정한 형식을 채워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에서
- 지원을 받지 않는 일부 노숙인들에게는 아웃리치가 서비스를 전달하려 노력한다. 특히 약물 중독인 경우에 그러하다.
- 하우징 퍼스트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고자 하며 대기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길게 기다리지 않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음주나 약물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 **하우징 퍼스트에 입각한 서비스의 현황**

- 참여단체는 공공 영역 뿐 아니라 민간 영역도 있음. 종교단체의 활동도 활발함.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노숙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진행됨. 재정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도 있고 복권협회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음.
- 중독이 심한 경우 하우징 퍼스트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진다고 볼 수 있음.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주거를 유지하는 능력과 무관하게 주거를 제공해야 하며, 하우징 퍼스트에 입각한다면 잠자리와 독립된 열쇠, 계약, 그리고 자신 만의 침실이 갖추어진 주거를 제공함
- 하우징 퍼스트에 의해 임주를 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물론 받으며 계약자도 당사자임.
- 일반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층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직원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독과 관련한 것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하우징 퍼스트 입주민은 지역서비스와 더불어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핀란드는 노숙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이 있다. 여러 수당들이 그러하다. 정신장애인이 임주를 했다면 그/그녀가 받는 정신 서비스는 노숙인 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보장 전체의 틀에서 받는 것임

○ **하우징 퍼스트 실현을 위한 주거 공급**

- 우선순위를 일부 계층에게 할당하여 그 압박을 줄이고자 하며 홈리스가 가장 우선순위이다. 또한 현재 사회 주택의 재고량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대기 시간이 도시와 시기별로 다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⑦	Y-Foundation 전문가 간담회
일 시	6/14 09:30~11:30
장 소	헬싱키(Y-Foundation)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Juha Kahila (Y-Foundation), 박영선 연구원 (헬싱키대학교)
○ Y Foundation의 역사 - 1985년 설립되었으며 지자체와 정신건강 연합회, 종교연합회, 적십자, 건설회사 연합 등이 협력하여 설립됨 ○ Y-Foundation 의 임대사업 : 주로 긴급 주거 니즈가 있는 저소득 및 빈곤자 등을 대상으로 함 - Y-Homes : 특별한 니즈가 있는 그룹 대상의 임대주택 - M2-Kodit : ARA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 그 외에도 인권옹호활동, 홈리스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 - 핀란드에서 4번째로 큰 주택 소유주임 - 현재 직원 수는 200명임 - 큰 도시에 지부가 있으며 주로 대도시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음. 중소도시는 서비스가 닿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곳은 빈집도 많고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임 ○ 재정 관련 두 가지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음 - 임대주택의 건설의 경우 80-95%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5-20%는 자기 자본을 투자하며 정부(ARA)로부터 이자를 보조받음 - 민간 시장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은행에서 50%를 대출받고 50%는 STEA(복권기금)에서 보조를 받음 (다만 지원금액 격차가 큼) ○ 헬싱키에 저렴한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 예시 - 전체 비용은 빌딩 당 15-20 백만유로 (약 195억-260억, 70-110호), 제곱미터당 585만원-624만원임 - ARA (정부)로부터 지원은 은행 이자 지원, 아파트 당 지원금 10만 유로(13백만원) = 전체 비용의 약 5%. 또한 토지임대시 저렴하게 임대해줌 - 임대료의 경우 월 595유로(77만3,500원, 제곱미터당 22,100원) ○ 핀란드는 노숙인 수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임 - 2023년 현재 장기 노숙인 1,018명, 단기 노숙인 2,411명 임 - 1985년 2만명에서 2023년 3,429명으로 83%가 감소하였음 - 가족 노숙인은 1987년 1,370에서 2023년 123으로 91% 감소하였음 - 노숙인 중 아동은 단독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시스템의 중점은 응급 대응 강조에서 예방 및 주거지원 강조로 변화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노숙인 프로그램의 변화는 아래와 같음
- 2008년-2011년(PAAVO1) : 하우스징 퍼스트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쉼터는 폐지되었으며 동의 하에 임대 주택이 2,1434호 공급되었음
- 2012년-2015년(PAAVO2) : 노숙인에게 3,523호가 공급되었음. 경험 있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고용되었음
- 2016년-2019년(AUNE) : 노숙 예방과 특별한 니즈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집중되었음.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노숙 관련 업무의 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감
- 2020년-2023년 (PROGRAMME) : 2023년 말까지 노숙인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음.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됨
- 2024년-2027년 (PROGRAMEE) : 2027년까지 장기 노숙인이 없도록 한다
- 현재 임시보호 침상은 200개 정도 남아 있음
- 임시보호시설에는 특별히 기간제한은 없으나 보통 2주에서 1달 정도 걸리며 하우스징 퍼스트 유닛에 들어갈 경우 최대 9달까지 기다린 적은 있음

○ 핀란드의 하우스 퍼스트 원칙은 다음 여섯가지이다.

- 1. 다양한 주거 선택 : 산재되어 있는 주택과 지원이 결부된 주택. 특별한 니즈와 환경의 선택
- 2.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개인화된 지원 서비스의 결합.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경험
- 3. 저렴한주택 : 40,000 채의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입주 선택은 주택 수요에 기초함
- 4. 노숙 예방 : 예방 수단으로 노숙 위험의 발굴 및 조기 개입 및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5. 활동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 개개인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에 대한 인정 및 그들의 능력과 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의 제공
- 6. 노멀리티 : 일반적인 임대 계약. 주류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및 건강 서비스
- 하우스징 퍼스트가 도입된 이유는, 국가적 정책이 2008년에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이 때 NGO의 설득이 있었고 당시 중도우파성격의 정당은 장기간 노숙을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 정책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하우스징 퍼스트가 도입된 것이다.
- 미국 모델과 상이한 점은, 먼저 미국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않는데에 있음. 또한 미국은 특정 그룹에게만 개방되어 있음.

○ 소셜 믹스 사례 (헬싱키 시에 있는 개발지(섬 임))

- 이 섬 지역의 70%가 헬싱키 시의 소유임. 시의 주택은 63,000호이며 이 중 50,000호는 ARA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이고 5,000호는 ARA의 점유 권리가 있는 주택임.

○ 핀란드의 홈리스 예방 정책

- 주거정책 : 환경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움 (2023-2027)
- 목표는 ARA 의 지원을 받아 핀란드의 주거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키는 것임
- 저렴 사회주택 : 주로 시급한 주거 니즈가 있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 특별한 그룹을 위한 임대주택 : 100,000 (노인, 학생, 그 외 특별그룹)
- ARA 임대주택 : 350,000
- 점유 권리가 있는 주택 : 50,000
- ARA 전체 주거 : 400,000 (모든 주거의 약 13%)

○ 하우스링 퍼스트 주거빌딩의 특징

- 하우스링 퍼스트용 주거빌딩 중 일부는 과거 시설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사용되는 곳도 있음. 또한 각 주거는 서비스기관, 교통시설, 일자리 등의 좋은 장소에 개설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일과 주거만족도

- 사람들 중에는 스티그마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 공간에 내려가서 지원활동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함. 또한 건물 청소 등의 일자리 활동을 함. 입주자의 절반 정도는 근무하는 상태이며 일반회사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음

○ 유럽 이민자 노숙인 문제가 있는 지, 대응하고 있는 지

- 노숙인 수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여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이주민은 증가하고 있음. 독일은 더 심각하고 숫자가 더 많음. 핀란드도 잘 개발하고 조정해야 함. 불법적 상태에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서비스는 제공되나 그 수는 정확하지 않음.

○ 정신 보건 관련 장기입원하는 경우는 없는 지?

- 핀란드에서는 장기 입원하는 정신건강 병원은 거의 없음. 대부분 지역 서비스를 이용함

⑧	핀란드사회보험청(Kela) 전문가 간담회
일 시	6/14 15:00~17:00
장 소	헬싱키(핀란드사회보험청)
참석자	임덕영, 신영규 (KIHASA), Juha Kahila (Y-Foundation), Signe Jauhiainen (핀란드사회보험청), Olli Kangas (뚜르꾸대학교), 박영선 연구원 (헬싱키대학교)

- 핀란드 주택 정책의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주택 협동조합의 발전은 핀란드에 독특한 것이었다. 이 협동조합들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흔히 없는 시스템이었다.
- 주택 협동조합: 러시아와 달리, 개별 아파트 소유는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장려하지 않지만, 핀란드의 주택 협동조합은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보장한다.
- 자가 소유: 핀란드에서는 자가 소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나라의 농업 유산과 정치적 역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소유 주택을 지원하였다.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재정착: 제2차 세계 대전 후, 약 10%의 인구가 소련 점령으로 인해 재정착되었고, 자가 소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대출이 제공되었다.
- 높은 자가 소유 비율: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핀란드 인구의 약 70%가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이는 많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비율이다.
- 주거 수당 시스템: 핀란드의 주거 수당은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관대한 시스템 중 하나이며, 임대료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물과 전기 비용도 포함한다.
- 일반 주거 수당: 저소득 개인, 젊은이, 가족, 학생, 실업자 등 모든 저소득 계층에게 제공된다. 주요 자격 기준은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수당 범위: 최대 수당은 인정된 주거 비용의 70%까지 보장되며, 2024년 4월부터는 80%에서 줄어들었다.
- 단순화 노력: 다양한 주거 수당(일반, 학생, 연금 수령자)을 통합하여 시스템을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특히 연금 수령자의 정치적 저항으로 지연되었다.
- 자동 결정 시스템: 핀란드 사회 보장 기관인 Kela는 혜택 처리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다.
- 소득 등록부: 2019년에 도입된 소득 등록부는 실시간 소득 검증을 가능하게 하여 혜택 계산의 정확성을 높였다.
- 혜택 계산: 주거 수당은 가구 소득과 법에 명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대도시, 도시, 농촌 지역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 정치적 영향: 주거 수당 시스템의 설계와 변화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현 정부는 분배 효과보다는 비용 절감 조치에 중점을 둔다.
- 다른 EU 국가들과의 비교: 핀란드 시스템은 더 관대하며 많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거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다른 나라들은 주로 사회 주택에 중점을 둔다.
- 기술 사용: Kela는 다양한 혜택을 위해 고급 IT 기술을 사용하며, 대량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는 학자금 지원도 포함한다.
- 공공 부문의 역할: 공공 부문은 주택 건설 및 유지 관리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책임은 주택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에 맡겨져 있다.
- 연금 수령자의 영향력: 연금 수령자는 핀란드에서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그들의 혜택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택 정책 결정을 종종 좌우한다.
- 단순화된 혜택 시스템: 현재의 주거 수당 시스템은 2015년 이전의 복잡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더 단순하고 선형적으로 설계되었다.
- 자격 및 보장 범위: 주거 수당의 자격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허용 가능한 주거 비용에는 특정 한도가 있다. 혜택은 실제 임대료가 아닌 이러한 비용의 일정 비율로 제한된다.
- 미래 통합 계획: 연금 수령자의 주거 수당을 일반 시스템과 통합하려는 계획이 있으나, 정치적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① 스톡홀름 임대주택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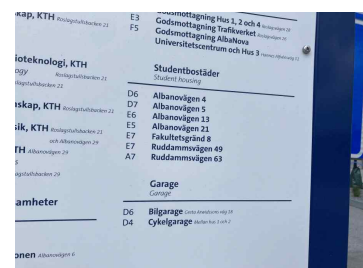
〔그림 1-1〕 사회주택 외관으로 다른 주택과 구별할 수 없다 (Roslagsgatan 20 단지)



〔그림 1-2〕 사회주택이 군데군데 있는 주택가로 다른 주택과 구별할 수 없다



〔그림 1-3〕 세련된 외관을 한 학생용 임대주택 외관



〔그림 1-4〕 Albano에 계획 건설된 학생용 임대주택 지도 및 게시판

② 스톡홀름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1



〔그림 2-1〕 Gunnar Andersson 교수와 신영규 부연구위원



〔그림 2-2〕 Gerda Ruth Neyer 교수 명함

③ 스톡홀름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2



〔그림 3-1〕 Livia Olah 교수와 신영규 부연구위원



〔그림 2-2〕 스톡홀름 대학

④ 헬싱키 임대주택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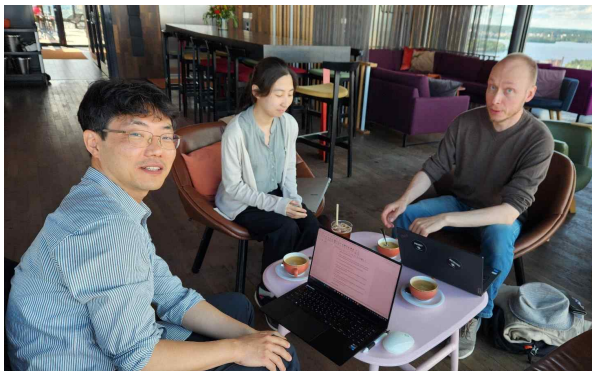


〔그림 4-1〕 Hyväntoivonkatu 7 임대주택



〔그림 4-2〕 Itämerenkatu 22 임대주택

⑤ 헬싱키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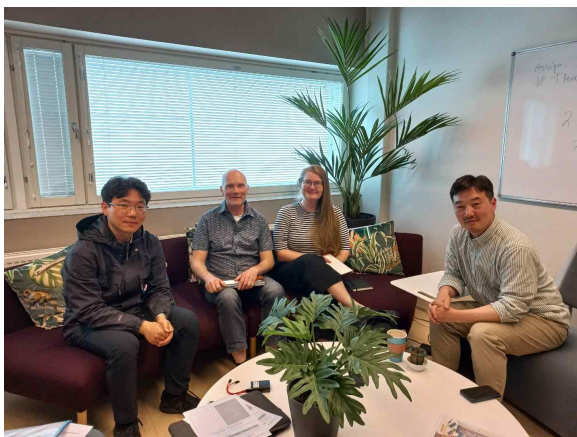


〔그림 5-1〕 Teemu Kemppainen박사, 박영선 박사과정생, 임덕영 부연구위원



〔그림 4-2〕 Teemu Kemppainen박사, 임덕영 신영규 부연구위원

⑥ 투르쿠대학교 전문가 간담회



〔그림 6-1〕 Jarkko Rasinkangas 박사, Elina Sutela 연구원, 임덕영 신영규 부연구위원

⑦ Y-Foundation 전문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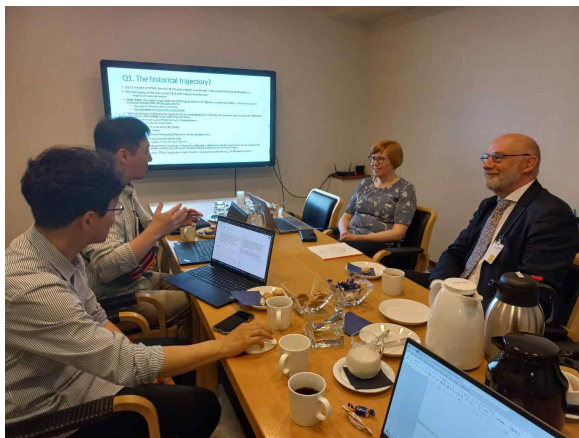


[그림 7-1] Juha Kahila 국제부 부장,
임덕영 신영규 부연구위원



[그림 7-2] Y-Station 입구

⑧ 핀란드사회보험청(Kela) 전문가 간담회



[그림 8-1] Juha Kahila 국제부 부장,
임덕영 신영규 부연구위원



[그림 8-2] Kela 입구